

체르노빌 원전의 운전원 모옌코씨

송 명 재

한전 전력연구원 방사선안전그룹장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드미트리 모옌코씨의 아홉 살짜리 아들은 여느 도시 아이들보다도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 기구는 물론 수영장까지 있어, 수업이 끝나도 집에 가기 싫을 정도이다. 학교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가도 깨끗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구워주는 쿠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아들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아빠가 무척 자랑스럽다. 아빠 덕택으로 천국 같은 도시 슬라브티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세워진 슬라브티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에 사고로 집을 잃은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로 세워진 도시이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약 6천명의 가족 2만5천명이 사는 이 도시에는 최고 수준급의 병원이 있으며, 길거리의 상점에는 고급 상품들이 풍부하게 진열되어 있다. 시내 곳곳에는 운동 경기장을 비롯한 공공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회사의 출퇴근 버스로 직장에 가는 모옌코씨는 10년 전에 살던 프리파트와 이곳을 비교해보고는 혼자서 미소를 짓곤 한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도 10년 전의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다.

86년 4월 26일. 그는 마침 비번이어서 아직 신혼의 티가 가시지 않은 아내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결에 누군가가 아파트의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며 겨우 일어나 문을 열자 발전소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서둘러 출근하라는 전갈이 왔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버스 정거장으로 나가자 벌써 십여명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버스 속에 타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는 발전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아직 먼동이 트기 전의 새벽 무렵이어서 한기가 옷 사이사이로 스며 들었다.

발전소에 가까워지자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경찰차의 소음이 점점 더 크게 들려 왔다. 발전소 쪽을 자세히 바라보니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빨간 불꽃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는 큰 불이 났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버스가 발전소 구내로 들어서자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체르노빌 4호기의 원자로가 위치해 있는 건물의 상부로 연기가 솟구치고 연기 속으로 간간이 붉은 불꽃이 내비쳤다.

버스에서 내린 그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드미트리 모옌코씨는 4호기 원자로 제어실로 들어가는 건물로 향했다.

그는 4호기 건물로 들어가려 했으나 건물 입구에는 발전소의 과장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터빈 건물 쪽으로 뛰어가서 소방 작업을 도우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왕좌왕하며 터빈 건물 쪽으로 휩쓸려 갔다.

모옌코씨는 4월 26일부터 28일 저녁까지 3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없었다. 3일 동안 그는 발전소 부지를 떠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 한가지 있었다.

그는 나름대로 방사선 피폭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 대부분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그 자신은 병원에서 별다른 방사선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들어 사고 수습이 끝나고 발전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자, 정부는 발전소 직원들을 위해 슬라브티치에 새 숲터를 만들어 주었다.

슬라브티치에 이사하기 전 드미트리 모옌코씨는 남모를 고민을 안고 있었다. 늦게 결혼한 그는 당시 아내와 함께 아기를 갖기로 굳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발전소 사고로 방사선을 받았으니 만약 아기를 가져 기형아라도 낳으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가 사고 기간 중에 받은 방사선량은 모두 25,000mrem이었다. 이 양은 물론 법으로 정해진 연간 5,000mrem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그들 부부는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다. 의사의 권고는 비록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방사선량으로 기형

아가 출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법으로 정해진 방사선 피폭 제한치는 많은 안전 여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도 해주었다.

의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방사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간다는니 또는 기형아를 출산할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기 때문이다.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그들 부부의 생각은 더욱 더 절실해졌다. 고통스러운 정도로 많은 고민 끝에 드디어 그의 부인은 임신을 하였다. 그로부터 아홉달 동안의 걱정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출산하던 날, 그는 아기를 보고 또 보고 무려 열번이나 아기 몸의 이곳저곳을 살살이 관찰하였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그들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좋은 충고를 해준 의사에게 한 없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모옌코씨는 사실 이곳 슬라브티치에 살면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아홉 살짜리 아들을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외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혹시 아들이 정신적으로 저능아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남몰래 걱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서 어떠한 이상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사고 덕분에 이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은근히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감사하게 되었다.

사실 방사선 피폭으로 후손에게 기형아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방사선으로 기형아가 생길 확률은 지극히 적다. 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도 입증되었다. ☞